Market Index / 24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085.66 +5.04	▼	658.75 -0.23	▲	55.97 +1.49		1USD	1193.01	1151.99	1EUR	1331.49	1279.55
							100￥	1098.39	1060.61	1CNY	174.23	157.65

제주지역 땅값 나홀로 5개월째 추락

3분기 누계 전국평균 2.88% 상승… 제주는 -0.44%
개발사업 부진·고점 인식 따른 투자 위축 등 영향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제주지역 땅값 상승률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냉랭한 부동산 투자심리를 반영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3분기(7~9월)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계(1~9월)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2.8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누계 3.33%보다 하락했지만 증가세는 유지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땅값은 지난 5월 -0.13%를 기록한 이래 5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3분기 누계 역시 -0.44%로 작년 동기의 4.99% 증가한 것에 견줘 '역주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9월 지가변동률은 -0.41%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주의 경우는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침체된 제주부동산 시장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제주지역의 지가변동률은 2015년 7.57%(전국평균 2.40%), 2016년 8.33%(2.70%), 2017년 5.46%(3.88%), 2018년 4.99%(4.58%) 등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1~4월 성장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지난 5월 기준, 급기야 하락세로 전환했다. 3분기 가장 높은 지가변동률을 기록한 세종시는 3.96%를 성장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의 올 3분기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줄었다.

올 3분기 제주지역의 토지거래량은 3만1657건(1필지 기준)으로 2018년 동기의 4만3908건, 2017년 5만1264건에 견줘 각각 27.9%와 38.2% 줄었다. 최근 5년간(2014~18)의 3분기 거래량인 4만8694건에 견줘서도 35.0%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순수토지 거래량은 올 3분기 1만8664건으로 같은 기간의 작년 2만3371건과 재작년 2만8146건보다 각각 20.1%와 33.7% 내려앉았다. 최근 5년간 3분기 평균 대비에서도 37.7%가 급감한 기록을 남겼다.

국토부는 제주지역의 3분기 지가변동률 하락과 관련, 제주시의 지가변동률은 -0.42%이며 지역내 개발사업 진행 부진과 부동산시장 고점 인식에 따른 투자수요 및 매수심리가 위축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귀포시의 경우는 -0.47%를 기록,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부진 및 신규 개발사업 부담 등에 의한 투자수요 위축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금배추 가격 피해 포장김치로?'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김장 채소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서 관계자가 포장김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미분양 사태에 입주경기 '냉랭'

10월 제주 전망치 60.0 기록
8월 꼴찌 이어 전국 최하위

제주지역 주택 입주율이 미분양 사태 등의 이유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10월 입주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제주지역의 입주율 추이는 4월 60.1%, 5월 51.8%, 6월 58.2%, 7월 63.6%, 8월 73.7%, 9월 62.1%(전국평균 75.1%)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주택 입주율은 지난달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며 입주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따른 10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0.0(전국평균 72.3)에 그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52.6), 충남(57.1), 경남(57.6)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8월 47.3으로 꼴찌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 50.0으로 다소 회복했지만 꼴찌 탈출에는 실패했다. 이후 이번달 들어 그나마 전망을 밝혔지만 기준치(100)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편 10월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민간분양 3개 단지로 모두 441세대다. 규모별로는 60㎡ 226호, 60~85㎡ 107호, 85㎡ 초과 68호 등이다.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23호(제주시 479·서귀포시 744)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제주농협 노지감귤 마케팅 사업설명회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2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2019년산 노지감귤 통합마케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는 농협하나로유통,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 및 계통 공판장 등 주요 소비지 담당자를 비롯해 도내 농·감협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하나로유통, 대외유통업체, 도매시장,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통합마케팅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통합마케팅 실적은 2300억원 규모이며, 노지감귤은 전년 대비 10.7%(920억원)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생산 동향을 설명했고, 감귤연구소는 국내 육성 신품종 감귤 보급 현황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고성만 대표이사는 "경기침체와 기상악화 등으로 판매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2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주요 소비지 담당자를 비롯해 도내 농·감협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산 노지감귤 통합마케팅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기계수확 가능한 '아람콩' 확대·보급

제주농기원 28일 현장평가회
현 재배품보다 수확량 11%↑
콤바인 사용에 노동력 절감

제주에 신품종 나물콩 '아람'이 확대·보급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144번지 시범단지에서 '아람콩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는 국내 나물콩 80% 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이지만 현재 재배품종인 '풍산나물콩'이 쓰러짐에 약하고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낮아 기계수확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아람콩'을 선발, 2017년부터는 조기 보급을 위해 시범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계수확 평가회에서는 아람콩 수확량이 10ha 당 240㎏로 풍산나물콩보다 11% 많았다. 또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고,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높아 기계 수확이 가능, 노동력이 50%나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당시 평가회에 참석했던 농업인들은 아람콩 종자 조기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2018년 2개소 4ha, 2019년 3개소 6.6ha로 확대·운영했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아람콩 육성 과정 및 주요 특성 설명, 생육특성 비교 분석 결과 발표, 참가자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아람콩의 재배 확대를 위해 콩나물 가공업체와 공동으로 콩나물 가공적성 및 소비자 관능평가도 실시한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2021년까지 국가보증 보급종 종자 생산체계를 구축, 2022년부터 매년 60t의 아람콩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류 아이돌 먹방으로 제주 알린다

관광공사 日 특집방송 제작

제주관광공사가 한류 아이돌을 활용해 한류 팬 층과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한류 팬 층과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일본 한류전문 채널에서 방영되는 일본 TV 특집 방송을 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집 방송은 한류 아이돌 그룹 '슈퍼노바'가 제주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제주의 제철음식과 'B급 구르메(저렴한 음식을 맛보는 식도락)'를 소개하는 '먹방(먹는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여행 팁도 소개할 계획이다.

'슈퍼노바'는 남성 5인조 그룹으로 올해 일본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유명 한류 아이돌 그룹이다. 이들은 가수 외에 영화 출연과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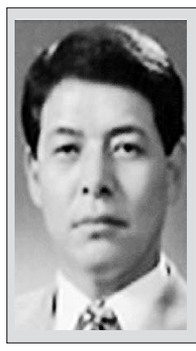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은 20~30대 여성과 개별관광객(FIT)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우선 한류 관심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제주관광 수요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접)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접)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80㎡ 3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폐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접 168㎡ 3억
- 애월수산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접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접 대지조성 481㎡ 6.5억원
- 한림상명 조립식주택 60㎡/대430㎡ 1.5억
- 판포 바다경관 굿 자연녹지 3028㎡ 6.4억원

※ 애월납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김녕해안도로접 2474㎡ 15억원